고흥군,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지 4곳 추천

여름휴가 힐링과 건강 한번에
팔영산·미르마루길 등 추천
나로도 편백숲, 천혜 자연길
"자연과 소통…건강함 느끼길"

고흥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의 시원하고 건강한 휴가지 4곳을 추천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416㏊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숲으로 '숲 치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꼭 방문해 봐야 하는 곳이다. 울창한 편백숲을 따라 걸을 수 있는 10㎞ 길이의 산책로부터 테라피센터, 명상쉘터, 전망데크 등 다양한 산림 치유시설이 마련돼 있다. 최근에 조성된 황토 맨발길은 숲을 걷는 즐거움을 통해 일상생활의 소음을 잊고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힐링 코스다.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보며 트레킹을 즐기고 싶다면 미르마루길을 걸어보자. 해안선을 따라 4㎞ 길이로 설치된 나무 데크와 산책로를 걷다 보면 팔영대교부터 용암 선착장, 용바위, 용굴, 사자바위 포토존,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남열해돋이해수욕장까지 고흥 동쪽의 명소들을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미르마루길 중간 지점에 위치한 몽돌해수욕장에서는 파도에 휩쓸리는 몽돌의 자그락거림이 지친 영혼까지 달래준다.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나로도까지 먼 길을 떠나왔다면, 편백숲에서 여독을 풀어보자. 1920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봉래산 자락에 30여만 평 규모의 시험림으로 삼나무를 심으며 조성된 숲이다. 키가 30m에 달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나무들이 하늘까지 높은 기세를 자랑하며 뻗어 있다. 멀리서 보면 산이 검게 보일 만큼 울창하다. 그리고 나로도항에서는 자연산 활어만을 취급한다. 편백숲과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면 제철 상차림의 싱싱함으로 활력 충전도 생각해 봄 직하다.

고흥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의 시원하고 건강한 휴가지 4곳을 추천했다. 고흥 미르마루길. 고흥군 제공

장어는 고흥 9미 중 첫손으로 꼽힌다. 고흥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녹동항으로 향하자. 항구 해안로를 따라 장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모여 장어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구이, 샤브샤브, 탕은 물론이고 싱싱한 회로도 맛볼 수 있다. 뼈가 억센 붕장어와 달리 이곳의 장어는 뼈가 연하고 살이 부드럽다. 사시사철 잡히는 붕장어는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5~10월에는 여름 최고의 보양식 갯장어를 맛볼 수 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기름진 장어요리는 여행의 피로를 단숨에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700대의 드론이 펼치는 군무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도 쌓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고흥에서 자연과 소통하며 건강함을 느끼고, 가족·연인과 아름다운 한여름의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시크릿 어드벤처' 4D 체험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는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 순천만국가정원 '시크릿 어드벤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크릿 썸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족 또는 여름방학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관람객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시크릿 어드벤처는 4D 어트랙션,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체험공간, 우드베어 포토존, 야외 마더트리 조형물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특히 4D 어트랙션은 우드베어의 모험을 의자 무빙, 물 분사, 바람, 안개 등과 같은 특수효과와 함께 입체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어 몰입감이 뛰어나다. 관람 후에는 함께 방문한 가족, 친구들과 포토부스에서 즐거운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시크릿 어드벤처' 체험료는 40% 할인된 가격인 3000원으로 식물원 2층 키오스크에서 매표 가능하며, 만 4세 이하는 무료 관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 인스타그램 팔로우 시 귀여운 캐릭터 굿즈(스마트톡)도 증정한다.

시 관계자는 "시크릿 어드벤처는 야외 관람 중심의 국가정원에서 차별화된 실내체험형 미디어콘텐츠로서 우드베어 함께 모험을 떠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다"며 "이번 여름 색다른 재미를 찾는다면 '시크릿 썸머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나의 청렴부채 만들기' 체험 보성군, 청렴문화 확산

보성군은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기간 중 6일) '나의 청렴부채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의 청렴부채 만들기'는 청렴의 바람이 부정부패와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으며, 강사 2인 1조로 구성된 3팀이 각 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찾아 진행됐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직원들은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친구야 보성가자! 신뢰받는 보성군' 문구와 함께 개인별 자율적으로 디자인한 그림과 사진 등을 부채에 새기며 자신만의 특색있는 부채를 완성했다.

송민섭 기자

여수시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조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조·고수온 종합대책을 수립,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적조·고수온 종합대책 수립… 피해 예방 만전

여수시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조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조·고수온 종합대책을 수립,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올해는 여름철 엘니뇨가 물러나고 라니냐 발생 전망에 따라 대마난류가 강해지면서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고, 평년 대비 높은 수온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여자만·가막만 일대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시는 적조·고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 적조 유입 해역에 대한 주기적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민간 철부선, 바지선 등 200여 척의 적조 공동방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황토 1만8971톤과 방제 정화선 3척을 확보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2일간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간담회를 마련해 돌산읍·남면·화정면·삼산면 우심해역 어업인 170여 명을 대상으로 지도에 나섰다.

이날 적조·고수온 발생 시 위기 경보 단계별 양식장 관리요령 등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어업인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재해 시 보상이 가능한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수산물 조기출하를 독려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오페라 '버섯 피자' 공연 성료 구례군

구례군은 지난 23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구례합창단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전라남도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블랙코미디 오페라 '버섯 피자'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블랙 코미디 오페라 '버섯 피자'는 20세기 희극 오페라의 대가라고 불리는 세이무어 바랍(Seymour Barab)이 만든 작품으로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네 남녀의 얽히고설킨 로맨스를 재미있게 그렸다.

이번 공연은 구례에서는 처음 선보인 오페라 공연으로 구례합창단 지휘자 김성진을 비롯한 소프라노 김리라, 메조소프라노 손정아, 바리톤 조지훈이 출연했다. 구례합창단의 협연과 피아니스트 조예닮의 피아노 연주까지 더해져 공연이 한층 더 완성도 있고 풍성하게 꾸며졌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여수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

여수시가 이달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 30대에서 60대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영업하다가 비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기본 500원(2km)에 1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일일 상한액은 1500원이며 월 한도액은 7만 원이다.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정산해 바우처 택시 기사에게 지급한다.

이용자는 올해 6월 기준 2만1491명으로 지난해(3만4074건)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대기시간이 평균 45분 소요되는 등 배차 한계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수시는 바우처 택시 사업 참여자 30명을 추가 모집하여 지난 25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용 시간 또한 1시간 연장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운행 대수가 늘어나고 이용 시간도 연장하면서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댐 생태미술관 업무 협약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주변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장흥댐 생태미술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28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6일 장흥댐 생태미술관에서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 김성 장흥군수,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이 모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댐주변지역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장흥군, 광주시립미술관 3개 기관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조영희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을 비롯하여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미술관 개관행사도 함께 진행됐으며 개관기념으로 장흥댐의 생태를 주제로 한 김미진 도예작가의 개인전이 개막됐다.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장흥댐 생태미술관 개관을 통해 댐이 기존 이치수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문화예술활동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을 발의하였는데, 특별법을 통해 장흥댐 생태미술관과 같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